

조선산업



그리스 선주, 중국 조선소에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10척 발주

산업분석

2025. 12. 10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저우산 창흥, 11400TEU급 8+2척 수주

그리스의 메이저 선주 그레고리 에코노무가 이끄는 TMS그룹은 중국의 저우산 창흥 조선소에 11400TEU급 컨테이너선 8+2척을 발주했다. LNG추진사양이 적용된 이선박의 선가는 척 당 1.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은 한국 조선 3사가 주력으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선종이라는 점에서 중국 조선소로의 수주계약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주계약으로 저우산 창흥 조선소의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는 32척으로 늘었고 40척 수주잔고를 갖고 있는 뉴 타임즈 조선소에 이어 수주잔고 2위 자리로 올라섰다.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순위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중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저우산 창흥 조선소는 아프라막스 탱커선박에서도 수주잔고 순위는 2위 자리에 올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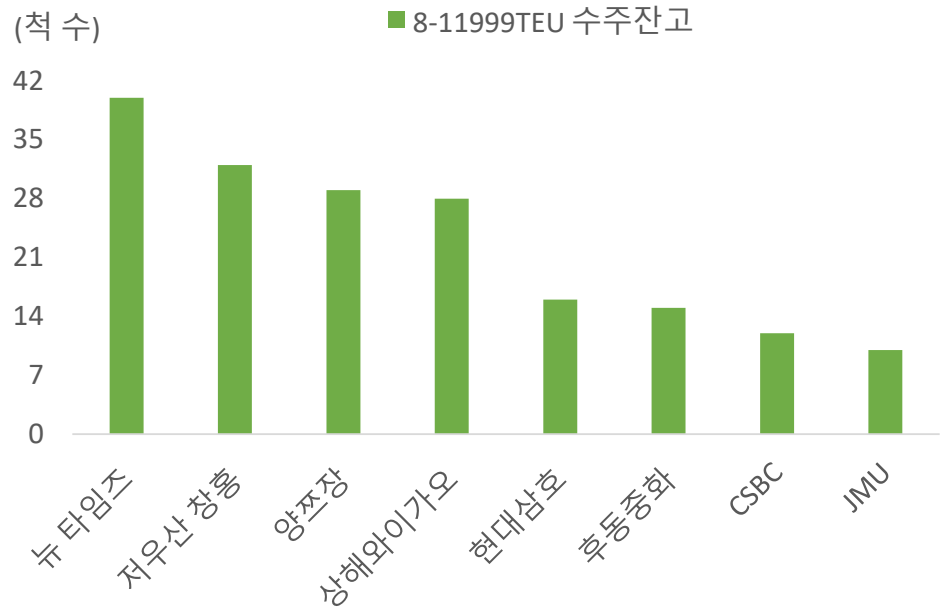
12000TEU급의 중국 점유율 75%

전세계 220척의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에서 중국 조선업은 75%에 해당되는 166척의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은 현대삼호와 DH조선, HJ중공업에서 함께 26척의 수주잔고를 확보해 점유율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은 확연하게 높아졌다. 컨테이너선은 건조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며 컨테이너선박의 제작 기술 또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대량 반복건조에 적합해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은 빠른 속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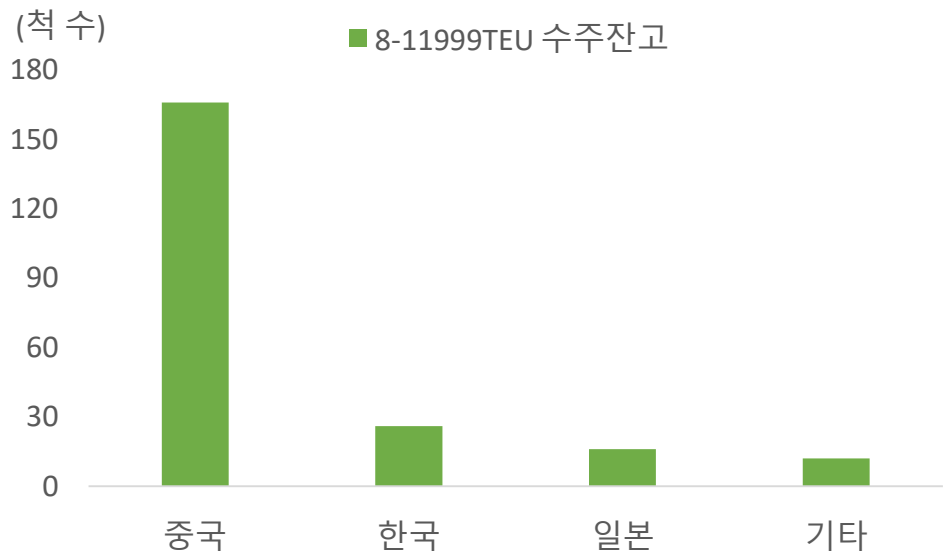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선박 발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욱 줄어든 발주량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선박 수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0년 이후 거의 모든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들의 지배력은 높아졌고 메이저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들을 선택하고 있어 내년 수주 경쟁은 최근 몇 년과 비교해 매우 치열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1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12000TEU급 컨테이너선 국가별 수주잔고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